

守坡 安孝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황 명 환*

- I. 서론
- II. 庚戌國恥와 수파의 만주 망명
- III.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
 - 1. 古土로서의 인식
 - 2. 可居地로서의 인식
 - 3. 受難處로서의 인식
 - 4. 守道處로서의 인식
- IV. 만주 공간 인식이 지닌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守坡 安孝濟(1850~1916)가 만주에서 남긴 한시를 대상으로 그의 만주 공간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의미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파는 한일병탄 당시, 단식으로 순국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일제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만주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때 만주라는 공간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파집』에 실린 대다수의 한시들이 만주 망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morning2436@hanmail.net

명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파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古土로서의 인식이다. 수파는 만주가 고조선의 옛 강토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만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두 번째는 可居地로서의 인식이다. 수파에게 있어 만주는 풍요로운 곡식이 있고, 一身의 자유를 안겨주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세 번째는 受難處로서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파의 만주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守道處로서의 인식이다. 이는 수파가 만주에서 中夏의 문물진장을 보존하고자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파의 만주 공간 인식은 민족의식의 계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만주에서 지은 한시들은 그의 유학정신을 강하게 보여 주기도 한다. 수파가 나라를 구할 인물의 도래를 기대하거나, 道의 중요성을 설파한 데에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 주제어

守坡 安孝濟, 만주, 망명문학, 공간 인식, 古土, 可居地, 受難處, 守道處

I. 서론

安孝濟(1850~1916)의 字는 舜仲이고, 號는 守坡이며, 경남 의령 출신이다. 그는 1883년(고종 20) 3월에 明經科에 급제한 뒤, 이듬해 봄에 衣制를 변경하라는 명령에 대해 상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힘써 간쟁하였다. 또한 당시 眞靈君이라는 巫女가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농단하자, 그를 斬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상소로 인해 수과는 추자도에 위리안치 당하게 된다. 이처럼 수과는 조선말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무너져 가는 綱常을 부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수과는 자신에게 내려진 관직들을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차례의 疏와 편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興海郡守로 도임하게 된다. 원치 않은 벼슬살이였지만, 수과는 어려운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가 남긴 <曲江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이후 韓日併呑 당시에는 7일 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自盡을 시도하였다. 망국의 신하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수과의 단식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일본 순사들은 수과에게 恩賜金을 수령하라는 핍박을 가해왔다. 수과는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였으나, 이 일로 인해 창녕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그리고 출감 이후에도 일제의 관헌들에게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1911년 봄,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수과는 마침내 만주행을 決行하게 된다. 수과의 만주행과 관련된 내용은 그가 남긴 <遼河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²⁾

현재까지 수과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편이다. 일찍이 정경주³⁾가

1) 『수과집』 권3, <曲江日記> 참고.

2) 『수과집』 권3, <遼河日記> 참고.

3) 정경주, 「20세기초 西間島 亡命 文學의 한 斷面 - 大訥과 守坡의 경우 - 」, 『文化傳統

大訥 盧相益(1849~1941)과 수파 안효제의 시문을 통해 20세기 초 서간도 망명 문학이 지닌 의미를 밝힌 바 있으며, 이은영⁴⁾ 역시 만주 망명 당시 수파가 남긴 한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후 정경주⁵⁾는 산문 연구를 통해 수파의 업적을 ‘절의’라는 핵심어로 제시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수파의 투항과 망명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다. 또한 이은영⁶⁾은 수파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의 만주 망명 동기 및 만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된 망명 한문학의 성격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그 외에 강동욱⁷⁾은 性齋 許傳(1797~1886)의 江右地域 강학 활동과 그 門人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의 수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수파의 생애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파가 지닌 문학세계의 전모가 폭넓게 다루어졌으며, 수파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수파가 지닌 ‘만주 공간 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대 망명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업적들을 수용하면서, ‘만주’라는 공간 자체에 더욱 밀착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만주에 대비되는 공간인 한반도에 대한 인식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수파가 남긴 한시, 그중에서도 만주 망명 전후에 창작된 작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⁸⁾ 사실 수파의 한시에 있어 ‘만주’라는

論集』 2,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1994, 137~160쪽.

- 4) 이은영, 「守坡 安孝濟의 西間島 망명과 憂國詩」, 『漢文學報』 25, 우리한문학회, 2011, 425~461쪽.
- 5) 정경주, 「守坡 安孝濟의 經綸과 節義」, 『南冥學研究』 3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43~69쪽.
- 6)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6.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20世紀 初 儒教知識人の 亡命과 漢文學 - 西間島 亡命을 中心으로 -」(2012)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7)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남명학연구』 3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1, 205~266쪽.
- 8) 본고는 1927년 高山齋에서 간행된 『守坡集』을 저본으로 한다. 이 간행본은 『국역 수

공간이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보인다. 이는 『수파집』에 남아 있는 작품의 비중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실제로 현전하는 『수파집』에는 73제 113수의 한시가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28제 33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주 망명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⁹⁾

물론 실제로 수파가 창작한 시문들은 현재 『수파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가 일제 관헌의 감시를 피해 황급히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만주에서도 일제의 핍박에 시달렸으며,¹⁰⁾ 문집이 간행되던 시기에 일제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¹¹⁾ 많은 시문들이 소실 또는 산삭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주에서 45제 80수의 한시를 남겼다는 사실은 여전히 주목을 요한다. 이를 통해 만주라는 공간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수파가 만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그의 만주 공간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파집』(안효제 지음, 박준원·남재주 국역, 신지서원, 2008, 478~600쪽)에 영인되어 있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한 시문은 기본적으로 국역본의 번역을 참고로 하되, 필요시 논자가 수정을 가하였다. 특히 시 번역의 경우, 意譯을 배제하고 直譯을 우선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9) 「수파집 해제」, 『국역 수파집』, 신지서원, 2008, 1쪽 참고.
- 10) 수파는 군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要注意 韓人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또한 당시 만주에 망명한 이들은 망명지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들을 없애기도 하였다.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6, 197~207쪽 참고.)
- 11) 수파의 문집은 수파 사후 11년이 지난 1927년에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설피의 高山齋에서 목판본 3책으로 간행되었다. (정경주, 「수파집 해제」, 『국역 수파집』, 신지서원, 2008, 1쪽 참고.) 그런데 당시 『수파집』은 항일사상을 고취시킨다 하여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박준원·남재주, 『국역 수파집』, 신지서원, 2008, 397쪽 참고.) 따라서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문집의 일부 내용이 산삭 또는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II. 庚戌國恥와 수파의 만주 망명

수파는 근대전환기라는 혼란한 시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가 태어난 직후부터 조선이 서양 및 일제에 의해 개항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항 요구는 조선의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강 제국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중국에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인사들도 친일파·친러파·친청파 등으로 갈라져 정치적인 혼란은 가중되기만 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서양 열강에 문호를 개방한 상태였다.¹²⁾ 특히 1868년(고종 5) 明治維新으로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공을 암암리에 계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1875년(고종 12)에 운요호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서양식 무기와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 조선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1876)을 체결하였다.¹³⁾ 이처럼 조선은 타의와 무력에 의해 외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과 개화로 말미암아 조선은 주체적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을 갖게 되었다.

조선은 外患뿐만 아니라, 內憂에도 시달렸다. 당시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그리하여 민중을 중심으로 東學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동학군의 기세가 치솟아 수백 리 간에 도로가 불통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지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라도 침범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호위하여 전송하는 자도 있었다. 모두 나흘을 가서 河東邑에 도착하니, 동학군이 郡兵과 여러 날을 대치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였다.¹⁴⁾

12) 서양 열강은 중국을 아편전쟁으로 굴복시킨 후, 1842년에 南京條約을 통해 5개 항구를 개항시켰다. 그리고 일본은 1858년에 미일통상조약에 의해 개항되었다. (하원호,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쪽 참고.)

13) 이후 조선은 1882년(고종 19)에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고,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열강들과도 차례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위 인용문은 수파가 추자도 유배에서 풀려나 본토로 돌아온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동학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동학군이 수파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다는 사실이다.¹⁴⁾ 이를 통해 동학군이 일부 탐관오리들로 인해 봉기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동학군의 봉기는 조선의 內憂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동학군의 위세가 날로 커지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동학군에 대한 진압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일본 역시 텐진조약과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은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고,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프랑스·독일 등 삼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이때 명성황후는 러시아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친러파를 대거 기용하였다. 이에 일본은 을미사변(1895)을 일으켜 조선의 식민지화에 방해가 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는 한일병탄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일병탄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순국을 단행한 이도 있었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이도 있었으며, 은거하여 후진을 양성함으로써 훗날을 도모하고자 한 이도 있었다. 당초에 수파는 단식 自靖을 통해 임금과 국가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였고, 이후 일제의 관현으로부터 은사금

14) 『수파집』 권3, <楸島日記> 일부. “時東徒熾盛, 數百里之間, 道路不通, 然余是再生之人, 人無不知, 無或侵犯, 反有護送者, 凡四日到河東邑, 東徒與郡兵, 相持多日, 爻象甚怖.”

15)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수파 역시 동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東學徒가 호남과 호서에 가득 찼다는 말을 듣고서 “추악한 무리는 온 도내에 가득하고, 군대 수레는 다섯 달 동안이나 삼한을 뒤흔들었네.(醜類千羣盈一省, 戎車五月動三韓.)”(『수파집』 권1, <聞東匪充斥兩湖>)라고 한 데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을 수령하라는 독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다가 창녕감옥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가) 11월 19일에 이른바 ‘恩賜金’의 일로 郡에서 통지서가 왔다. (중략) 나는 대의를 내세워 그를 나무라면서 가지 않았는데, 다만 글을 지어주기를, “나는 대한제국 왕의 신하이다. 나라가 망함에 구하지 못하여 죽더라도 餘罪가 있거늘, 원수 나라의 군주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답시고 이렇게 돈을 하사한단 말인가? 이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다. 선비는 죽일 수 있어도 모욕할 수는 없으며, 망한 나라의 대부는 살아남기를 도모할 수 없다. 만약 다시 나에게 이런 것을 한다면, 나는 죽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⁶⁾

(나) 吾身生長老於斯 頭上韓天雨露垂 刃可蹈之心有定 金何賜也義當辭 有還楸島曾何日 守死箕邦正此時 神護歸來牢獄後 故山松柏歲寒知	내 몸은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늙었는데, 머리 위 대한의 하늘에 비이슬이 내리네. 칼날도 밟겠다는 마음 정해 두었는데, 돈은 어찌 주는가, 의리상 마땅히 사양해야 한다네. 추자도에서 돌아온 날은 일찍이 언제였던가, 기자의 나라 죽음으로 지킴이 바로 지금이라네. 신명이 보호하셔서 감옥에서 돌아온 뒤에야, 고향 동산 송백이 세한의 지조 있음을 알겠구나. ¹⁷⁾
--	--

(가)는 <昌狂日記>의 서두로, 은사금을 수령하기 위해 駐在所로 가자고 제안한 面長 趙昌植에게 대답한 내용이다. 은사금 거절로 인해 수파는 일본 순사에게 온갖 협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26일에는 창녕경찰서장이 보낸 이가라시 순지로와 손갑준에 의해 주재소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로 결박당한 채 창녕경찰서에 수감되고 만다. 당시 일제는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 수파에게 은사금 수령을 강요하였으

16) 『수과집』 권3, <昌狂日記> 일부, “十一月十九日, 以所謂恩賜金事, 通知書自郡來到, (中略) 余責以大義而不往, 但以書遺之曰, 我大韓王臣也, 國亡不能救, 死有餘罪, 讎國之君, 於我何恩, 而有此金賜乎, 非恩伊辱, 士可殺不可以辱, 亡國之大夫, 不可以圖存, 如有復我者, 有死耳已.”

17) 『수과집』 권1, <自昌狂歸入高山齋>

며, 十大臣을 지낸 자들도 모두 은사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수과는 끝끝내 절의를 주장하면서, 돈을 받는 즉시 자결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실, 고종을 강제로 폐위한 사실, 을사조약을 통해 나라를 빼앗은 사실 등을 낱낱이 이야기하며 저항하였다. 결국 창녕경찰서장도 수과를 두고 “光武의 신하이 지, 明治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하며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창녕감옥에서 돌아와 고산재로 들어가며 지은 시이다. 여기에서 수과는 은사금을 받느니 차라리 칼날을 밟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奈勿王의 두 아우를 구출한 뒤, 왜왕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朴堤上의 설화를 떠올리게 한다. 박제상 역시 왜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신라의 개폐지가 될지언정 왜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고 하며, 발바닥 가죽이 벗겨진 채 갈대 위를 걷는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과의 굳은 절의는 마지막 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에 『논어』, 「子罕」에 나오는 ‘歲寒松柏’의 고사가 용사되었기 때문이다.¹⁸⁾ 이처럼 수과가 지향했던 바는 일신의 안락함보다는 변치 않는 절의였다. 그렇기에 은사금을 수령한 十大臣을 매국노라 칭하고, 생사를 함께하고자 약속했던 李容元(1832~1911)이 남작 작위를 받아들이자 절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수과의 만주행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수과는 원수 같은 일제와는 한낱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과가 만주행을 결심한 데에는 이러한 관념적 이유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요하일기> 서두에 “두 차례나 야만족의 감옥에서 곤욕을 치른 나머지 일마다 조사를 받는 터라,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자유롭지 못했다.”²⁰⁾라는 기

18) 『논어』, 「子罕」,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19) 『수과집』 권2, <與李判書> 일부, “今見申報所載, 茲曷故焉也. (中略) 所得清要者, 不過前日之所力辭者, 則何必捨彼堂堂陞遷之階, 謂此時可乘, 而與賣國賊同歸, 則閣下前後事, 無乃兩截乎. (中略) 或無他, 而以患得爲心, 則當以割席二字, 付與矣, 幸勿怪焉.”

20) 『수과집』 권3, <遼河日記> 일부, “再困曾獄之餘, 隨事調查, 求死不得, 而一動一靜,

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수파의 만주행이 관념적 이유와 더불어 현실적 문제로 인해 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수파는 왜 하필 ‘만주’를 택한 것일까?²¹⁾ 이는 수파가 한시를 통해 ‘만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자연스레 구명될 것으로 보인다.

Ⅲ.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

이 장에서는 수파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을 확인해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파집』에 수록된 수파의 한시는 거의 대부분이 만주 망명 이후에 창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시들에는 만주에 대한 수파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古土로서의 인식, 可居地로서의 인식, 受難處로서의 인식, 守道處로서의 인식으로 大別된다. 그리고 각각의 인식은 그의 만주 망명 동기 및 만주에서 느꼈던 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古土로서의 인식

역사적으로 만주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의 옛 疆土였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는 여진족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으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空洞化되어 封禁地로 정해졌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조선과 청나라가 白頭山定界碑에 기록된 ‘土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선

有難自由.”

21) 만주, 특히 서간도 망명인들이 서간도를 망명지로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은영은, 민족고토라는 상징성, 지리적 접근성, 기존에 형성된 한인사회의 영향, 교통의 편리성, 대규모 농장 건설의 적합성, 북간도보다 덜한 추위, 청나라 및 일제와의 관계 등에 주목한 바 있다. (이은영, 위의 책, 101~102쪽 참고.)

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 주장하였고, 1903년(고종 40)에는 李範允(1856~1940)을 間島管理使로 파견하여 만주지역 일대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지역으로 망명을 떠났던 독립지사들 역시 이곳이 단군의 八條法이 시행된 곳이자, 고주몽의 創業地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²²⁾ 이처럼 19세기~20세기 당시, 만주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古土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파에게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수파가 만주로의 노정을 기록한 <요하일기>의 한 부분이다.

대개 西間島 한 구역은 실로 수천 년 전 檀君과 箕子가 다스리던 옛 강토로서, 땅은 중국 관할이지만 전쟁의 경보가 드물어 그곳이 이곳[朝鮮]보다 나은 점이 있고, 조선 사람으로서 피난을 간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 걸음을 하였다.²³⁾

여기에서 수파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만주 지역이 단군과 기자가 다스리던 우리 민족의 옛 강토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난 간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파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지역은 오래전에 이미 중국의 관할지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땅의 경계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장소라는 점이 수파의 만주행에 큰 영향을 주었던 듯하다. 즉, 수파에게 있어서 만주는 단순한 異國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만주는 제2의 고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孤臣不死亡國日	외로운 신하는 망국일에 죽지 못하여,
俯作於人仰愧天	아래로 남들에게 부끄럽고 위로 하늘에 부끄럽다네.
一片溇陽非晉地	한 조각 溇陽 땅이 췌나라 땅 아니라면,
淵明何以保殘年	도연명이 어찌 남은 생을 보전하였으리. ²⁴⁾

22) 전설련, 『『白下日記』의 敘述方式과 그 文學的 性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3) 『수파집』 권3, <遼河日記> 일부, “蓋西島一區, 實數千年前, 檀箕舊疆, 地轄中華, 罕見兵火之警, 彼善於此則有之, 而韓人避世者, 多居之, 故有此不得已之行.”

이 시는 1911년에 수파가 만주로 들어가던 날, 집안의 장로에게 편지를 대신하여 올린 작품이다. 1구와 2구에서는 한일병탄 당시 망국의 신하로서 목숨을 내놓지 못했다는 한탄이 담겨 있다.²⁵⁾ 이어지는 3구를 통해서 수파가 만주를 古土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구에 나오는 ‘晉地’는 고유명사로 해석하기보다는 4구에 나오는 도연명과 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쫓나라는 도연명의 고국이고, 潯陽[현 江西省 九江市]은 그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도연명은 어지러운 정국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결국 <歸去來辭>를 부르며 고향에 은거하였다. 즉, 이 시에서의 도연명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가고자 하는 수파 자신을 假託한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수파가 만주를 도연명의 고향인 심양에 비친 것을 통해서, 그가 만주를 고토, 나아가 제2의 고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2. 可居地로서의 인식

수파가 망명지로 만주를 택했던 것은, 만주가 지닌 상징적 의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만주에는 조선에서 피난 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수파 당대에 만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이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의 수탈을 피해 생계를 도모하고자 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수파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즉, 만주 망명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의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수파는 <요하일기>에서 ‘자신

24) 『수파집』 권1, <入瀋日呈門長老 辛亥>.

25) 『수파집』 권1, <庚戌生朝> 2수 中 제2수에 “不貸偷生亡國臣”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통해 수파가 을사늑약 당시부터 나라가 망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6, 76~77쪽 참고.

의 만주행은 일거수일투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과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자 만주행을 결심했던 것이다. 수과가 만주를 可居地, 즉 거주할 만한 공간으로 인식했던 사실은 다음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㉞) 이른 아침에 길을 재촉해서 小坦坪을 지나는데, 토질이 좋은 전답과 아름다운 땅 오륙십 리에 집이라곤 채 100가구가 안 되었다. 산은 높지 않으면서 무척 아름답았고, 나무는 성글지 않으면서 무척 빼어났으며, 집을 지어 거주할 만한 陽宅이 많았다. 이름난 터전, 명승지는 저절로 때를 기다려서 그런 것이던가!²⁶⁾

(㉟) 韓人 수천 호가 경내에 마치 바둑판처럼 배치되어 있으며, 완고히 옛날의 풍습을 바꾸지 않고 덕으로써 서로 사랑하니, 주변 천여 리 내에 地利와 人和가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대로 거주하려고 도모합니다마는, 예절은 무지합니다.²⁷⁾

(㉞)에서는 수과가 만주를 가거지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답, 땃감, 풍수 등 물질적인 요소이다. 이는 한일병탄 당시 조선인의 삶이 매우 곤궁해져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런데 (㉟)에서는 (㉞)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나타난다. (㉟)에서 수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地利와 人和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에게 ‘韓人들이 옛 풍습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은, 일제 또는 친일파가 조선인을 폄박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과의 한시에 나타난 가거지로서의 만주 공간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만주의 물질적 풍요가 강조된 시이다.

26) 『수과집』 권3, <遼河日記> 일부, “早朝促行, 過小坦坪, 良田美土五六十里, 家不滿百, 山不高而甚美, 樹不疎而甚秀, 多有陽宅之可居者, 名基勝地, 自有待時而然歟.”

27) 『수과집』 권2, <答成貫謙一濬> 일부, “韓人數千戶, 基置於境內, 不變頑古之習, 相愛以德, 周行千餘里, 地利人和, 無愈於此, 故仍謀居住, 然但禮節貿貿耳.”

平郊漠漠田千畝	평평한 들판의 광활한 밭 천 이랑,
竟夜蕭蕭雨一鉏	밤이 새도록 쓸쓸한 비 한 줄기.
大地生民生路闊	대지의 백성 살 길이 넓으니,
閒人有暇學樵漁	한가한 사람은 겨를 있어 초동과 어부 배운다네. ²⁸⁾

접리수 농막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지은 시 7수 가운데 제3수 일부이다. 인용시 1구에는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어지는 2구에서는 밤새 비가 내리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넓은 들판에 내리는 비는 바로 ‘豊饒’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에 3구에서 대지에 사는 백성의 살 길이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지는 말 그대로 ‘큰 땅’인데, 현재 수파가 살고 있는 만주를 뜻하며, ‘살 길이 넓다’는 표현은 여유롭게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구에서는 閒人으로 자처한 시적 화자가 초동과 어부를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여유의 바탕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 시에서는 그러한 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南北東西一望原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들판을 바라보니,
柴扉處處幾田園	사립문 곳곳에 전원이 몇이던가.
雲連海氣長時雨	구름 이어진 바다 기운에 오랫동안 비 내리고,
霧鎖林端白日昏	안개에 갇힌 수풀가에 밝은 해가 저무는구나.
失業流民耕稼足	생업 잃은 유민들 경작하기 족하고,
潛踪逋客姓名存	자취 숨긴 隱者들 성명을 보존하네.
冠峨衣博今何世	관 높고 옷 너르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猶有箕韓故國村	오히려 기자 대한 고국의 마을이 있다네. ²⁹⁾

접리수 마을에서 寧齋 李建昌(1852~1898)의 아우인 耕齋 李建昇(1858~1925)에게 화답하여 지은 시 2수 가운데 제2수이다. 1~2구에서

28) 『수파집』 권1, <梨墅閒曠> 7수 中 제3수 일부.
 29) 『수파집』 권1, <接梨樹酬李上舍建昇> 2수 中 제2수.

는 사망이 들관으로 가득 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만주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언급하였다.³⁰⁾ 그리고 수파는 5~6구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풍요로움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망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7~8구에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수파는 일제의 핍박을 못 이겨 만주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 위협이 되었던 것은 일제의 수탈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文物典章에 대한 일제의 강압적 태도가 수파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수파가 계속 한반도에 거주하였다라면, 그는 일제로부터 은사금을 수령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양의 복식을 입으라는 강요를 끊임 없이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로의 망명을 택함으로써, 비로소 높은 관과 넓은 옷으로 대변되는 옛 제도와 문물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그는 만주의 들관을 바라보며 箕韓 故國의 마을이 바로 만주에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수파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둘 모두의 관점에서 만주를 거주할 만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3. 受難處로서의 인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파가 만주를 ‘古土’ 내지는 ‘可居地’로 인식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만주라는 공간은 어쩔 수 없는 他國이기도 했다.³¹⁾ 수파의 만주 망명이 개인의 능동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망국, 일제의 핍박 등 외부의 요인이 많

30)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둔 풍요였다. 즉, 절대적 풍요라기보다는 ‘상대적 풍요’인 것이다. 실제로 만주에서의 생활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으며, 수파 역시 자신의 시를 통해 타국에서의 고통을 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실제로 수파가 생을 마감하였을 때, 그의 아들 安喆相이 부친의 묘지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중국 외교부로부터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은 內地[중국 땅]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6, 44~45쪽 참고.)

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만주는 자연스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수난의 공간이 되었다. 다음 글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날 밤 12시에 南大門에 내려, 門内の 金允植의 집에 투숙했는데, 곧 20년 전의 옛 주인이었다. 마주 앉아 슬픈 표정으로 그 사이 桑田碧海와도 같은 세월을 갖추어 말하자니,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피곤과 번뇌를 못 견디고 종일토록 자리에 몸을 맡겼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山河는 예전과 같지만 人事는 이미 틀려버렸다. 곡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이에 절구시 두 수를 지어 麥秀之嘆을 부쳤다.³²⁾

인용문은 <요하일기>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山河라는 자연물은 예와 다름이 없건만, 그가 평생을 몸담았던 왕조는 이미 망해버렸다. 곡조차 하지 못하고, 절구시를 지은 데서 수과의 哀恨을 느낄 수 있겠다. ‘맥수지탄’은 옛 영화를 자랑하던 도읍에 보리가 무성함을 보고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수과는 만주행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도 망국에 대한 애한을 깊이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安植源(1868~1945)에게 보낸 답장을 통해서도 망국민으로서의 비애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과는 “제가 滄浪을 취한 데는 원망하거나 탓할 바가 없으나, 본디 목석이 아닌지라 어찌 先山을 생각하는 자손의 마음까지 없겠습니까?”³³⁾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만주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재종숙에게 올린 편지에서 고조부의 문집 편찬과 관련된 일을 언급하거나,³⁴⁾ 고조부의 문집인 『宜

32) 『수과집』 권3, <遼河日記> 일부, “是夜十二點, 下南大門, 投宿於門內金允植家, 卽二十年前舊主人也, 相對悵悵, 備說其間桑海之悵, 忍不可聞, 困惱叵耐, 終日委席, 舉目視之, 山河依昔, 人事已非, 欲哭不可, 迺作二絕詩, 以寓麥秀之嘆.”

33) 『수과집』 권2, 「答安復初植源」 일부, “孝濟 滄浪之取, 無所怨尤, 而自非木石, 豈無墳墓子孫之思哉.”

34) 『수과집』 권2, 「上毫海再從叔」, “高祖考文集, 其果始役耶, 此子姪之責, 而反貽煩於父兄, 悚甚悚甚.”

庵集』에 대해 발문을 쓴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⁵⁾

수파의 한시에 나타난 수난처로서의 만주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何時生入玉門關	어느 때에야 살아서 옥문관을 들어가리,
宗國山川夢寐間	宗國의 산천이 꿈속에도 나타나네.
小壯當年憂杞國	젊은 시절 당시에는 杞國을 근심하였더니,
衰顏殘景泣袁安	쇠퇴한 만년에는 袁安의 눈물 흘린다네.
三歲殊方難著足	삼 년 동안 타향에서 발붙이기 어려우니,
六州那地可怡顏	六大洲 어느 곳에서 기쁜 얼굴 하겠는가.
朝端誰是汾陽手	조정의 누가 郭汾陽의 솜씨로,
能使明皇故國還	능히 明皇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하리. ³⁶⁾

접리수 농막에서 읊은 시 7수 가운데 제6수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1구에 보이는 玉門關은 본디 흉노를 방비하기 위해 漢武帝 때 수축된 관문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옥문관 안쪽이 國內를, 그리고 옥문관 바깥쪽이 國外를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이어지는 2구에서 宗國의 산천이 등장하는 데서 더욱 명확해진다. 3~4구에서는 수파 자신의 삶이 어떠한 행로를 겪어왔는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구의 杞國은 夏禹의 후예를 봉하여 禹祀를 받게 했던 나라인데, 명나라를 위해 제사를 지내던 우리나라를 의미한다.³⁷⁾ 실제로 수파는 젊은 시절에 국가와 임금을 위해 直諫하다가 유배를 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4구에 등장하는 袁安

35) 『수파집』 권4, 「宜庵集跋」, “去年冬, 余將去國而西也, 屬族父銓鐵曰, 世間事, 無足掛心, 惟此事未戡, 卽死目不瞑, 諸父將若之何, (中略) 不肖, 喜其成之亟, 而悲其不能與於役.”

36) 『수파집』 권1, <梨墅閑嚙> 7수 中 제6수 일부.

37) 이와 관련하여 『論語』, 「八佾」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夏나라의 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杞나라가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殷나라의 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宋나라가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자로 기록된 典籍과 그것을 다룰 줄 아는 賢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文獻이 충분하다면 내가 증거낼 수 있을 것이다.”라 하셨다.(子曰, 夏禮, 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 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 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92)은 후한 때의 인물로, 국가의 일을 말할 때마다 근심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결국 수파는 만주로 망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故國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했던 것이다.

이어지는 5구와 6구에서는 타국 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아무리 만주가 古土이면서 可居地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 타국 생활은 결코 편안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이는 그가 망국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7~8구를 통해 수파는 郭汾陽(697~781)과 같은 이가 나타나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해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曠分양은 당나라 때의 名將으로, 安·史의 난 때 河北과 河東 지역을 수복하여 왕조를 다시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결국 수파 자신은 이미 노쇠하여 그러한 임무를 스스로 감당할 처지가 되지 못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에도 수난처로서의 만주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權晚熙의 中양삼첩운에 화답하여 보낸 시 3수 가운데 제2수이다.

去年此地對重陽	지난해 이곳에서 중양절을 대했는데,
依舊黃花照眼香	여전히 누런 꽃은 눈에 비쳐 향기롭네.
雲物不殊風土異	구름 빛깔 다르지 않은데 풍토는 달라서,
泫然雙淚忽沾裳	주르륵 두 줄기 눈물이 문득 옷을 적신다네. ³⁸⁾

이 시 제1수에는 고국에서 중양절을 보내며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위 인용시에는 그와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국화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국화여서, 옛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맞이한 중양절은, 수파에게 큰 비애로 다가왔다. 1수에서 이야기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수난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파가 만주를 수난처로 인식하는 모습은, “쑥대 문에 흠방이 지금 나의 거처, 고향 고국은 만여 리 멀리 아득하여라.”³⁹⁾라고 한 데서도 확인할

38) 『수파집』 권1, <遙和權重彥晚熙重陽三疊韻> 3수 中 제2수.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만 공간적 거리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까지 작용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에게 고국은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⁴⁰⁾

4. 守道處로서의 인식

일찍이 수파가 관직에 있을 당시, 고종은 개항을 통해 신문물을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 및 중국에서 신문물을 배운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의복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⁴¹⁾ 이때 수파는 의복제도를 고치지 말 것을 청하면서, “의복제도의 변경은 국가의 다급한 일은 아니로되,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바는 심히 큼니다.”라고 하였다.⁴²⁾ 이는 제도의 변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바를 적실히 지적한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종래의 의복제도가 中夏의 文物典章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수파에게 있어 조선의 文物典章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聖賢의 遺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그의 만주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음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 伯夷와 叔齊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장문물이 殷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았으며, 짐승의 발굽과 새의 발자국 같은 야만족의 침범이 미치지 않았고, 民族은 멸망에 이르지 않았으며, 온 나라 국토는 夷狄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홀로 首陽山을 보전하여 스스로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백이와 숙제가 만약 오늘날 생존했다면 또한 의리를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⁴³⁾

39) 『수파집』 권1, <遙贈權箕允載轍> 일부, “蓬門土室我今居 鄉國迢迢萬里餘”

40) 실제로 수파는 만주를 자신이 죽을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수파집』 권2, <答鄭承旨寅杓>, “孝濟, 偷生畏死, 逋亡到此, 以爲畢命之所, 而何敢自道以此一事, 爲有報於國家耶, 愧死愧死.”)

41) 『수파집 해제』, 『국역 수파집』, 신지서원, 2008, 12쪽 참고.

42) 『수파집』 권2, <請勿改衣制疏> 일부, “大抵, 衣制之變, 在國非急務, 在民所係, 甚大.”

43) 『수파집』 권2, <答金敬道昂淳> 일부, “夷齊之世, 典章文物, 不變殷制, 獸蹄鳥跡, 無

(나) 不肖가 봉착한 사정은 선조 獻納公과 비슷하지만, 처지는 또한 다릅니다. (중략) 조선왕조가 일어남에 典章文物은 用夏變夷하여 억조창생이 소생될 희망이 있었고, 온 국토가 夷狄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중략) 그러나 저와 같이 박명한 사람은 이미 모실 부모가 없는데다 국가가 멸망하여 전장문물의 옛 제도를 돌이킬 수 없고, 온 산하가 夷狄에게 병탄되어 한 조각 몸 둘 곳이 없습니니다. 선조께서 이러한 시대를 당했다면 어떤 의리로 처신했겠습니까?⁴⁴⁾

(가)는 金昞淳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伯夷와 叔齊는 절의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 글에서도 두 인물의 절의는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이·숙제가 주나라를 떠나지 않고, 수양산에 머물렀던 이유를 밝힌 데 있다. 즉, 주나라의 文物典章은 은나라의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이·숙제가 굳이 주나라를 떠나지 않았어도 무방했다고 본 것이다. (나)는 문중의 여러 장로들에게 올린 편지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선조인 헌납공 安堵의 사례를 들어 자신이 만주로 건너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수파는 조선왕조가 中夏의 文物典章을 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수파가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만주로 건너간 것은,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夷狄의 땅이 되어 더 이상 어떠한 文物典章도 남아 있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수파에게 있어서 만주는 道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음의 시를 통해 守道處로서의 만주 공간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憶昔杜門多逸民	생각건대 옛날 두문동엔 逸民이 많았는데,
今看檀樹不孤隣	지금 보니 檀樹에도 이웃이 외롭지 않네.
衣弊縑袍不恥貉	해진 縑袍 입어도 담비 옷에 부끄럽지 않고,

有侵及，民族不至滅亡，全幅輿圖，不爲夷狄之地，故獨保首陽，以圖自靖，然今時則果何如也，未知夷齊，若當今日，亦何以處義乎。”

44) 『수과집』 권2, <上門中僉長老> 일부, “不肖所遭，與先祖獻納公，相類，而所處，亦有異焉，(中略) 聖祖龍興，典章文物，用夏變夷，億兆蒼生，有來蘇之望，全幅輿圖，不入於夷狄之手 (中略) 如我薄命，既無怙恃，又當國亡，典章文物，無復舊制，全幅山河，爲夷狄所吞，無一片置身之處矣，未知先祖，若當此時，亦將何以處義耶。”

家無僮僕自爲薪	집안에 僮僕 없어도 스스로 땀감을 만드네.
四座人悲周顛晉	주위 사람들의 슬퍼함은 쯔나라 周顛과 같으나,
千年山僻武陵秦	천년 산골의 궁벽함은 秦나라 武陵과 같다네.
多賀賢孫先義守	어진 후손이 선대의 의리 지킴을 깊이 하례하노니,
從茲以往地名新	이제로부터 지명이 새로워지리라. ⁴⁵⁾

접리수 한인촌을 개척하는 데 앞장섰던 秋潭 蔡熙東에게 창수하여 지은 시이다. 1구에 나오는 두문동은 여말선초 때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은거했던 곳이다. 2구의 단수는 수파와 추담이 거주했던 안동현 접리수 마을을 뜻한다. 결국 수파는 자신이 살고 있던 접리수 마을을 두문동에 빚대면서, 당시 만주로 망명 온 이들이 추구한 바가 두문동 72현이 추구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上門中僉長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파는 현재의 상황과 여말선초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두문동 72현은 중하의 문물제도가 존재하는 조선 땅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수파 자신은 고국을 떠나 만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4구에서는 타국에서 궁벽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추담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곤궁함에 대해 수파와 그 주변인은 상반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5구에서 주변인들은 모두 궁벽함을 슬퍼한다. 그러나 6구에서 수파는 추담의 이러한 생활을 무릉도원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7~8구에서 드러난다. 즉, 수파는 추담이 비록 곤궁한 삶을 연명하고 있지만, 조상의 의리를 계승하여 中夏의 문물전장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는 『논어』, 「子罕」에서 “해진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은 자와 같이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子路일 것이다.(衣敝緇袍, 與衣狐貉者, 立而不恥者, 其由也與.)”라고 한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수파나 추담 등 접리수 한인촌 개척자들에게 만주가 守道處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45) 『수파집』 권1, <酬蔡春可熙東>.

수 있겠다.

IV. 만주 공간 인식이 지니는 의미

지금까지 수파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파는 만주를 古土 내지는 可居地로 인식함으로써, 만주로의 망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의에 의한 망명이었다 할지라도, 망국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망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느끼는 비애는 심각한 것이었다. 한편, 그가 다른 곳이 아닌 만주로 망명을 간 것은, 만주가 文物典章을 보존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주 공간 인식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민족적 차원의 문제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식의 계승이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의식을 고취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군, 혁거세 등이 숭배되었다.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에도 단군은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였다. 그리고 만주는 단군이 지배했던 영토로 인식되면서, 많은 지사들이 독립운동의 기지로 활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결국 수파가 만주를 고토로 인식한 것 역시 민족의식의 계승 혹은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먹고 사는 것을 중시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수파 개인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수파가 만주를 가거지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외직으로 있으면서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흥해 고을은 한 차례 민란을 겪고는, 네 해나 곡식이 여물지 않는 흉년을 만났고, 게다가 관아의 창고마저 텅 비어 백성들은 믿을 데가 없었던 터라,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보고도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여주기를 기다리듯 바라고 있었으니, 어찌 불쌍하고 측은하지 않았겠는가!⁴⁶⁾

위 인용문은 흥해군수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구휼한 내용을 담고 있는 <曲江日記> 중 일부이다. 수과는 동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다른 사대부들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위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애민정신에 투철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한시에서 만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한반도의 백성들이 일제의 수탈을 피해 이곳저곳을 유랑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실제로 수과가 대눌 노상익, 耕齋 李建昇(1858~1924), 추담 채희동 등과 함께 접리수 한인촌을 개척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⁴⁷⁾ 이처럼 가거지를 찾아 만주로 떠난 수과의 의식 안에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함께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유학정신의 견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족의식의 계승, 또는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민족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유학정신의 견지는 보수적인 유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난처로서의 인식은 슬프고 처량한 면모를 보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수과 역시 고국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한시를 통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수과는 결코 여기에만 함몰되지는 않았다.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인물이 나타나기를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가 최종적으로 바랐던 것은 명황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과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유학자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문물전장을 강조함으로써 만주를 수도처로 인식한 것 역시 유학정신

46) 『수과집』 권3, 「曲江日記」 일부, “該邑, 一經民擾, 四值無穀之年, 況空衙之餘民, 無攸恃, 見此無能之人, 仰之若嬰兒之待哺, 寧不矜惻.”

47) 이러한 사실은 노상익의 후손가에 전해지는 <中國 南滿洲 安東縣 接梨樹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동일, 「100년 전 중국 안동현에 세워진 한인촌의 모습, ‘중국 남만주 안동현 접리수도’」,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295~296쪽;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韓國史研究』 171, 한국사연구회, 2015, 291~293쪽 참고.

의 견지로 볼 수 있다. 관료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망국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는 그가 국가와 존망을 함께하기 위해 단식 순국을 시도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망국 자체만큼이나 커다란 충격은, 바로 일제에 의해 그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문물전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데 있었다. 수파에게 있어 일제에 강점된 한반도는, 더 이상 옛 문물전장이 지켜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렇기에 수파는 자신의 안위 및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유학의 도를 지켜내고자 만주로 건너갔던 것이다. 물론 당대에도 여전히 많은 유학자들이 한반도 내에 머무르면서 문물전장을 지켜내기 위해 진력하였다. 하지만 수파는 자신의 상황이 백이·숙제 및 선조 안도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수파는 당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유학정신을 견지하고자 목숨을 걸고서 만주를 찾아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수파는 조선이 內憂外患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관직에 나아가 내·외직을 두루 경험했던 그에게, 한일병탄은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그는 단식으로 순국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일제로부터 은사금을 수령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모진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파는 일제의 땅이 되어 버린 한반도를 떠나 만주행을 결심하게 된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만주행을 결심한 수파에게, 만주라는 공간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파집』에 실린 73제 113수의 한시 중 28제 33수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모두 만주 망명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수파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古土로서의 인식이다. 수파는 만주가 고조선의 옛 강토이고, 한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만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그렇기에 그의 시에는 만주가 제2의 고국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可居地로서의 인식이다. 수파는 외직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곤궁함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일체에 의해 모진 고초를 겪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만주는 풍요로운 곡식이 있고, 一身의 자유를 안겨주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즉, 물질적·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이 바로 만주였던 것이다.

세 번째는 受難處로서의 인식이다. 수파에게 있어 만주는 고토이자 가거지였다. 그러나 그의 만주행은 자의적인 것임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망국민으로서의 애환을 질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 번째는 守道處로서의 인식이다. 수파에게 있어 문물전장의 존재는 나라의 존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수파는 이미 이적의 땅이 되어 버린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에서 中夏의 문물전장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만주 공간 인식은 민족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뚜렷한 의미를 보여준다. 우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식의 계승을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고토로서의 만주 공간 인식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군, 고주몽 등이 강조되었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가거지로서의 만주 공간 인식은, 수파의 개인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만주 공간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의 만주 공간 인식에는 유학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 수난처로서의 인식이 슬프고 애잔한 면을 강하게 드러내지만, 수파는 단순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를 구할 계책을 지닌 인물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처로서의

인식 안에는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유학의 道라는 인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처럼 수파는 보수적인 유학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닌 가치를 보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만주행을 결심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논어』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남명학연구』 3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1, 205~266쪽.

박준원 · 남재주 국역, 『국역 수과집』, 신지서원, 2008.

서동일, 「100년 전 중국 안동현에 세워진 한인촌의 모습, ‘중국 남만주 안동현 접리수도」,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287~301쪽.

_____,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韓國史研究』 171, 한국사연구회, 2015, 277~317쪽.

오병환, 「1900~1920년대 日本의 安東領事館 설치와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165~200쪽.

이은영, 「守坡 安孝濟의 西間島 망명과 憂國詩」, 『漢文學報』 25, 우리한문학회, 2011, 425~461쪽.

_____, 『요동의 학이 되어』, 학자원, 2016.

전설련, 「『白下日記』의 敘述方式과 그 文學的 性格」,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6.

정경주, 「20세기초 西間島 亡命 文學의 한 斷面 - 大訥과 守坡의 경우 - 」, 『文化傳統論集』 2, 경상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1994, 137~160쪽.

_____, 「守坡 安孝濟의 經綸과 節義」, 『南冥學研究』 3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2, 43~69쪽.

하원호,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erception of Manchuria and Its Meanings in Supa Ahn Hyo-je's Chinese Poetry

Hwang, Myeong-hw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Manchurian space and to understand its meaning in Chinese poetry by Supa Ahn Hyo-je. At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He tried to die by fasting but failed to achieve his purpose, and suffered from the Japanese empire. In this situation, he decided to go to Manchuria. At this time, the Manchuria seems to have a special meaning to him.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poems in the Supajip were created after the Manchurian exile.

The perception of Manchuria in Supa's poetry can be rough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first is the perception of Korean old territory. Supa tells us that Manchu is the old territory of Gojoseon, and showed a lot of attachment to Manchuria. The second is perception as a place worth living. For him, Manchuria was perceived as a place to have abundant grain and freedom. The third is awareness as suffering space. This seems to have occurred because the Supa's Manchuria exile was du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The fourth is recognition as a space to keep the Tao. This can be confirmed in his attempt to preserve the Chinese cultural heritage in Manchuria.

It is noteworthy that Supa's recognition of the Manchurian space shows the succession of ethnic consciousness. In addition, he showed a strong spirit of Confucianism through the Chinese poetry created in

Manchuria. We can confirm these points when Supa anticipates the appearance of a person who will save the country or preaches the importance of the Tao.

keywords :

Supa Ahn Hyo-je, Manchuria, Exile literature, Space recognition, Old territory, A place worth living, Suffering space, Space to keep the Tao

